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2018년도 압관리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완주군 보건소가 2018년도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21일 전북대병원 모악홀에서 열린 '2018년 전라북도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대회에는 14개 시·군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업무 관련자 50명이 참석했으며,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 성황리에 이뤄졌다.

평가기준은 ▲압 예방 교육·캠페인 활동(10점) ▲검진수검률(80점) ▲우수 사례발굴(10점)로 세부지표에 따라 기준 점수를 적용해 총 합계 산출로 평가했다. 완주군은 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시상과 함께 2018년 압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수행을 평가하고, 2019년 사업의 추진내용과 방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대식 김제부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앞장

김제시는 지난 20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관내 재난사고 취약지역 중 1곳인 금구 14지구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관계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김제시와 전북도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전대식 부시장은 재난위험 취약분야인 금구 14지구 급경사지에 대하여 "절·성토 및 석축 부분,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상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마련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안전위험 요소들이 사전에 발굴 조치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다음달 19일까지 현재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박준배 시장, 농림축산부·국토부 방문 정부의 지원 요청 전대식 부시장, 국회의원에게 주요 공모사업 등 협조구해

김제시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고 중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저산 고품질화 핵심기술 연구기반 구축과, 용지지역의 AI 질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금밀집지역 내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이 절실함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김제와 전북혁신도시 그리고 완주, 부안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남선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게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매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이날 전대식 부시장은 국회를 찾아가 김중희 국회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공덕, 황산,죽산),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

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등 주요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지원 대상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현실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예산편성 순기인 4~5월 사이에 맞춰 더욱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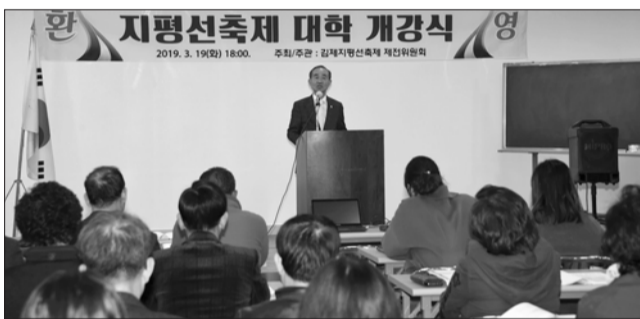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 개최

축제 이벤트경영사

3급 자격과정 ... 5월 7일까지 교육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정희운)에서는 전북 최초로 운영하는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과정인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을 구 문화예술회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에는 정희운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박준배 시장, 황영석 도의원, 정강환 세계축제 한국지부 회장, 김선유 문화위원장, 정미경 김제시동호회 이사장, 임형규 김제시의정회 회장, 최상규 배재대 교수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 내빈소개 및 환영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희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농경문화축제로 성장하는데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며 이번 지평선축제 대학에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은 매우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2층 교육장에서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을 진행했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에서 "위대한 김제시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속에서 5년 연속 정부가 지정한 문화관광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 축제가 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2019년 한해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평선축제대학은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발급해주는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증 과정 교육으로써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18시 30분부터 축제 및 이벤트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축제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축제 경영의 실제와 전략, 국내의 축제 성공사례 연구등을 교육을 받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정거버넌스 협의회' 개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21일 삼라농정의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정 거버넌스 협의회'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농정 거버넌스 협의회는 행정(1),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1), 지역농협(11), 농업인단체(8) 등 21명이 참석

하여,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현상 의견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삼라농정의 주요사업으로, 품목별(양파, 마늘)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항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해당품목(양파, 마늘)을 직접 생산해 계통화한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신형 쏘나타'를 출시했다.

현대차, '신형 쏘나타' 본격 판매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 적용 스포티 중형 세단 이미지 완성 비점등 시 크롬, 점등 시 램프로 변하는 '히든라이팅 램프'

현대자동차가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신형 쏘나타'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

2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4년 3월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적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스포티 중형 세단 이미지를 완성했으며 각종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을 대폭 높였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는 현대차가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르 필 루즈(Le Fil Rouge)'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현대차 디자인 철학으로 ▲비율 ▲구조 ▲스타일링(선, 면, 색상, 재질)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디자인 근간으로 하며 세 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됐다.

신형 쏘나타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빛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라이트 아키텍처'를 통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외관디자인과 첨단 기술 및 세심한 정성이 녹아 든 실내 공간을 갖췄다.

이러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뉴 라이즈)보다 전고가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늘어나 혁신적인 스포티 디자인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동급 최대 규모의 제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잘뽑니, 모터트렌드, 카엔드라이버, 오토블로그 등 해외 유명 자동차 전문매체들과 소비자들이 연이은 호평으로 신형 쏘나타의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출시 후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신형 쏘나타는 ▲하이트 크립 ▲쉬머링 실버 ▲햅턴 그레이 ▲녹턴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레이팅 레드 ▲옥스포드 블루 ▲미드나잇 블랙 등 8개의 외장컬러와 ▲블랙 원톤 ▲네이비 투톤 ▲그레이지 투톤 ▲카멜 투톤 등 4개의 내장컬러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3세대 신규플랫폼을 적용해 정숙성, 승차감, 핸들링, 안전성, 디자인 자유도 등 차량 기본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러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모든 엔진을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으로 변경해 연비를 높였으며 가솔린 2.0, LPI 2.0 등 2개 모델을 운영한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2.0 CVT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으며 최고출력 160마력(ps), 최대토크 20.0(kgf·m)의 동력성과 기존 모델보다 10.8% 증가한 13.3km/l(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갖췄다. LPI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돼 최고출력 146마력(ps), 최대토크 19.5(kgf·m)의 동력성과 기존 모델 대비 8.4% 향상된 10.3km/l(16?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확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쏘나타는 각종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해 도로 위의 풍경을 바꿀 미래지향적 세단"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상품 경쟁력을 통해 중형 세단 시장의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a large '112' logo.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three columns of information: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